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6호 【루게 제24344호】 주제102(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월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 온 친서를 우리 나라에 방문하고있는 라넨 모하마드 마르며 플리어나 나팔레

가외무상이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의무상이 선물을 드려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6일과 17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소리》방송과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민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전두합동들을 보시고 기동훈련을 지도하신 소식,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에서 현지지도하신 소식,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신 소식들도 올렸다. 중국 보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택일과 경질유리로 특색있게 장식한 살림집 건물만족하게 바라보고 2호동 3층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공중살림방, 부엌, 서재, 부부방 등을 일일이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미 비준해준 설계안대로 가구들을 구색이 맞게 놓았으며 바닥재도 질 좋은것으로 깔았다고, 벽의 색갈과 부녀도 온화한감을 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미 약속한대로 모든 살림집들에 액정TV도 놓아주시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그릇들도 일식으로

본사기자

온 겨레가 우러르는 불세출의 선군래양

남 녀 겨레들 격찬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발표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들 길이 빛내어나가자》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온 겨레의 심장을 여세게 울려잡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선군정치, 선군경제를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로작의 구절 구절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사상의 절대적리성과 불멸의 업적이 깊이 새겨져있고 절대위인들의 유훈과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감회력을 가지고 온 겨레의 마음을 울려잡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민족자주의 정치, 평화수호의 정치, 통일애국의 정치로 격찬하는 남 녀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성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선군정치를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력사적공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울며 격찬하시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운동체력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소민족의 골메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의 강권과 횡포를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는 이북동포들의 자주적기상을 지켜보며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있다. 세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선군정치가 아닌 행성의 평화와 안정에 의하여 남북 북에는 조국통일의 열풍이 불어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 녀

본사기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마지막로선의 삭도설비조립공사 본격적으로 추진

마 식 령 스키 장 전 설 장 에 서

위대한 선군명장의 애국의 호소를 높여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펼쳐나선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삭도건설공사를 본매있게 해체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총천한 기세와 애국적열의에 의해 이미 두 개 로선의 삭도탑들이 세워진데 이어 마지막로선의 삭도건설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건설하여 마식령지구에서 사외 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스키장건설에서 삭도설치공사는 주타격대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6월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삭도건설을 비롯한 대상공사과제를 수행할 때 특별히 언급하신 공평한 대우를 주시었다. 지난 8월의 썩는듯 한 무더

위도 마다하지 않고 마식령 스키장건설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삭도설치정형을 알아보시고 올해 겨울부터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해발고가 1360m인 대화봉정점까지 삭도를 운용할수 있도록 공사를 다그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하루빨리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로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총천한 기세로 삭도건설공사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삭도건설은 현재 마식령스키장건설의 3개 구역에서 진행되고있다. 초중급스키 및 쉐메주구역과 스키주로의 도착지에서 대화봉까지의 구역에 형성하는 삭도건설은 여러 개소에 조종실들을 꾸리고 필요한 전력설비들도 설치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삭도건설공사에 참가한 추진되는 속에 이미 초중급스키 및 쉐메주와 고급주로구역에 대한 삭도탑재우기와 쇄바늘들이 끝났으며 삭도바가지들만 설치할만 가동할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 지금 스키주로의 도착지에서 대화봉정점까지의 로선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꾼들은 삭도건설공사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서도록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최정철동무를 비롯한 지휘부

본사기자

해마다 전력생산계획 넘쳐 수행

대흥단군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이 굴지의 감자산지 대흥단군에서 지난 15년간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단군의 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군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계획을 해마다 10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었다. 이것은 감자농사혁명의 불길기 때문은 대흥단군을 실지 전기화의 덕을 보는 고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군의 일꾼들과 전력생산자들의 결사관철정신이 낳은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전기화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디다.》 대흥단군이 감자농사와 함께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나갔음을 바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군의 책임일꾼들은 중소형발전소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였다. 군에서는 이미 건설한 발전소들을 전면적으로 보수정비하며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었다. 군에서는 대흥단 1호발전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안고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평양 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충훈 찍음

우리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 - 일심단결

한글기 시대를 다스리는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십수백의 시대를 합쳐진 대하의 거대한 흐름은 쉽게 휘어잡을수 없다. 천만이 아니라 목천 인민의 위력은 합종의 힘이며 이 세상 무기중의 최강의 무기이다. 력사에 등장한 많은 정치가들의 꿈이었지만 결코 이룰수 없었던 단결의 정치리념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신분은 우리 천만군민의 영리한 심장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은 어느 나라나 민족이 체험해볼수 있는 그러한 력사적시기 아니었다. 세기의 꽃피는 봄은가 내리워진 시계였다. 련이어 종식된 후 우리나라는 일국세계를 꿈꾸는 미제에게 있어서 반드시 허물어야 할 사회주의보루였고 자주의 성채였다. 미제는 세계도처에 널리났던 무력을 우리를 고립압살시키는 전쟁행위에 매지어 들이밀었다.

이번에 나는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최전방에 나섰습니다. 이밖에 내가 전선동부의 351고지에 나간대 대하여 우리 인민들이 제발 최전방엔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한결같이 제기하고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세가 긴장한 속에서 최고사령관이 작돔과 코를 맞대고있는 최전방에까지 나간다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위험한 최전방에까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제기하는 지성에서 큰 고무를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수령님을 모신 사상감정의 표현입니다.

나를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위험한 최전방에까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제기하는 지성에서 큰 고무를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수령님을 모신 사상감정의 표현입니다.

나를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위험한 최전방에까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제기하는 지성에서 큰 고무를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수령님을 모신 사상감정의 표현입니다.

나를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위험한 최전방에까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제기하는 지성에서 큰 고무를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수령님을 모신 사상감정의 표현입니다.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도 승엄히 비껴있는 일심단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하나같이 따르고 그 구심점에 뭉쳐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인도네시아 외무상 일행을 만났다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장에서

외래방문하여온 라네 모함마드 마르르 몰리나나 나말레가와 인도네시아의외무상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선 외무성 부상과 나르리 구스타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있었다.



감나무종대에 배푸신 은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جلو걸으신 전선길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병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나무종대 군인들에게 배푸신 은정에 대한 이야기도 허다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가시며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친어머님처럼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다.

어느덧 그이께서 종대에 대한 현시찰을 마치시고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사건 활영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이를 모시고 또다시 사진을 찍고싶어하는 구대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살피고 중대가 다같이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중대원들은 너무 기뻐 저저마다 위대한 장군님에게 조공이라도 더 가져가서 고싶어 앞을 다투어 촬영대쪽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은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제 86 (1997)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감나무종대에 달리는 일군들의 마음은 마냥 경청에 설레고있었다.

몇몇전 이쪽 중대를 찾오시어 군인들에게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셨다고 하신 사랑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러 또다시 구분대에 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은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제 86 (1997)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22일 원산에서 진행되었다.

준비를 다그치고 기술인군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강원도, 정권기관, 사회단체 및 경제기관인민위원회, 학도부림운동총연맹위원회 위원장, 도내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인군들과 근로자, 교직원, 학생들을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도의 전반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고무적기초에 되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2(1953)년 10월 전후복구건설을 떠맡은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정체현소, 과학연구소, 원산농업대학(당시) 등 여러 단위를 돌아보시며 복구

준비를 다그치고 기술인군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강원도, 정권기관, 사회단체 및 경제기관인민위원회, 학도부림운동총연맹위원회 위원장, 도내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인군들과 근로자, 교직원, 학생들을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도의 전반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고무적기초에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 나가자》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현대적인 연구기지

국가 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찾아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

지난 18일 국가과학원 중앙버섯 연구소가 훌륭히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수도의 곳곳에 회한한 문화유적들과 병행되는 비롯한 현대적인 기법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 우리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중앙버섯 연구소가 세상에 자랑할만 하게

일떠선것은 내 조국의 또 하나의 크나큰 자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명도와 지도속에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과학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실히 갖춘 버섯연구소가 회한하게 솟아났다. 인민군인들의 결사투쟁의 정신, 단숨에 기상에 의하여 100여

일동안 일떠선 이 연구소는 나라의 버섯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꾸러진 중앙버섯 연구소에 대하여 소개한다.

글 본사기자 윤호영
본사기자 장은영
사진 본사기자 한광범

와 버섯생육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버섯배설기형이 있는 기법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 우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중앙버섯 연구소가 세상에 자랑할만 하게

도시들과 최신과학기술자료를, 각종 도시설비를 열람할수 있다. 컴퓨터자료 기지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동화상자들과 버섯기르기에서 나서는 세계적 추세자료들이 구비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보다 깊이 배우고 새로운 착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의 차량은 이뿐이 아니다. 연구소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시 설비들을 리용하여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버섯원종균을 생산하여 보 장할수 있다.

연구소의 차량은 이뿐이 아니다. 연구소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시 설비들을 리용하여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버섯원종균을 생산하여 보 장할수 있다.

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버섯연구소 연구사들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섯배배기술자들이 회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동화상자들과 버섯기르기에서 나서는 세계적 추세자료들이 구비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보다 깊이 배우고 새로운 착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그날을 그려보시며 연구소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시 친어버이사랑속에 버섯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연건축면적이 수천㎡이고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배배장, 기본청사와 보조청사 등으로 이루어진 버섯연구소는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이다.

적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것이 옛말로 되었다. 연구사들은 마음먹은대로 자기가 구상한것을 실행을 통하여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는 또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져있어 연구사들이 목적하는대로 연구사들을 진행할수 있다. 균에 대한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시킬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품종을 감별할수 있는 유전자종족장치, 전기영동장치 등이 있어 연구사들은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수 있다.

또한 형광현미경, 립체현미경, 세제일 등도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어 세포들의 구조를 더 깊이 연구할수 있을뿐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이속중해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버섯생산의 공업화실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질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것이다. 연구소에는 각종 현대적인 측정 및 분석설비들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대응원료를 개발하고 영양함량, 잡균억제제를 만들어 버섯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밖에 토 제약설비들을 가지고 약용버섯성분을 리용한 건강식품 및 약제개발을 할수 있고 인공기후장치

연구소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시 설비들을 리용하여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버섯원종균을 생산하여 보 장할수 있다.

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버섯연구소 연구사들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섯배배기술자들이 회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동화상자들과 버섯기르기에서 나서는 세계적 추세자료들이 구비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보다 깊이 배우고 새로운 착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버섯도 많이 재배하여야 합니다.》

중앙버섯연구소는 버섯배배공업화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연구소의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덧붙이지게 건설된 하나하나의 건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뿌듯이 느낀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버섯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선군혁명명도를 이어가시는 그처럼 빠르신 가운데서도 설계와 시공,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우선 무진화, 무균화가 훌륭히 실현되었다. 균을 다루는 버섯연구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진화, 무균화를 실현하는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연구실과 실험실을 분리시켰다. 연구사들은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실험실에 들어올 때는 공기샤워를 거치게 되어있으며 안에는 무진화, 무균화된 공기가 흐르고있다. 그리고 집종실과 배양실에는 특별히 공기를 소독하고 정화하는 설비가 설치되어있다.

지난 시기 연구소는 위생조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여 과학연구사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꼈다. 한 번 하면 될 실험도 여러번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다나니 연구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품이

또한 형광현미경, 립체현미경, 세제일 등도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어 세포들의 구조를 더 깊이 연구할수 있을뿐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이속중해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버섯생산의 공업화실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질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것이다. 연구소에는 각종 현대적인 측정 및 분석설비들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대응원료를 개발하고 영양함량, 잡균억제제를 만들어 버섯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밖에 토 제약설비들을 가지고 약용버섯성분을 리용한 건강식품 및 약제개발을 할수 있고 인공기후장치

연구소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전자시 설비들을 리용하여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버섯원종균을 생산하여 보 장할수 있다.

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버섯연구소 연구사들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섯배배기술자들이 회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동화상자들과 버섯기르기에서 나서는 세계적 추세자료들이 구비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보다 깊이 배우고 새로운 착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버섯연구소 연구사들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섯배배기술자들이 회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자료들,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과학영화, 과학기술특집을 비롯한 동화상자들과 버섯기르기에서 나서는 세계적 추세자료들이 구비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보다 깊이 배우고 새로운 착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이 지금보다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건설물을 리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건물들이 후세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립체감을 안겨주는 외랑 연구소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는것이 기본청사와 보조청사를 연결하는

인것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의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 해주신 버섯연구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외랑이다. 외랑을 통하여 연구사들은 여러 연구실과 실험실들을 오갈수 있다.

연구실의 외랑은 현대적인 건축미를 살리려서 민중적형식을 갖춘 것으로 하여 특색이 있다. 기둥과 바닥, 칸간을 여러가지 고급진재들을 가지고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연구소에 들어서는 건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또한 기둥과 기본보, 장식보가 잘 결합되어 립체감과 시원함을 나타낸다. 더우기 조명효과를 잘 살려 밤

에도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휴식터 휴식터도 잘 꾸러져 연구소의 모습을 한껏 돋아준다. 조화로운 연구조건을 어울리게 건설된 휴식터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해를 가리울수 있게 버섯 모양의 지붕을 형성하고 아래에 원형으로 의자를 만들어 놓은 휴식터는 마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한다.

여러가지 색깔로 단장되어있고 냉풍기나 난풍기 등도 함께 만들어져 마치 거대

한 세대의 버섯이 땅위에 돌아난 것처럼 보인다. 더우기 버섯을 형상한 버섯배배시합장들을 배경으로 하고있어 더욱 이채를 띤다. 연구사들은 휴식함에 여기서 새로운 착상을 무의치한다.

특색있게 건설된 울타리 연구소에 건설된 울타리가 아주 특색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세운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콩크리트관식물타리이다. 여기에 분무식도장방법을 받아들여 마치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것처럼 형성하였다. 하기에 이곳을 휴식터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때마다 이곳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연구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울타리생산기계를 제작하고 새로운 도장방법을 받아들여 이처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다고 말하곤 한다.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훌륭한 연구기지에서 과학의 내래를 마음껏 펼쳐지 될것만도 감격스러울만큼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보고 영광한 버섯배배시합장들을 배경으로 하니 가슴에 넘치는 크나큰 감정을 어떻게 터놓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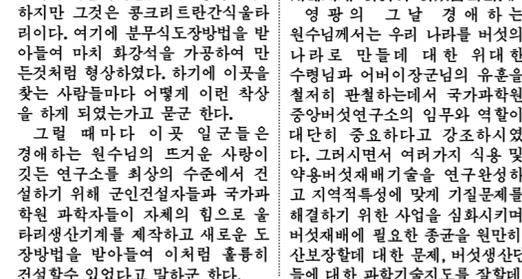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태가 더 많이 차라지게 하여야 하겠습디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흔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여러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배배기술을 연구완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버섯배배에 필요한 균종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 버섯생산단위 건설할수 있었다고 말하곤 한다.

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연구소에 나서는 파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우리 연구소의 전체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여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할바라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는 버섯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이 땅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도시, 군, 농장, 기관, 기업소들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또한 약용버섯의 리용분야도 적극 개척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강식품, 약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원수모두의 목표도 높고 신심 또한 높다. 훌륭한 연구기지가 있고 높은 실력과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지닌 과학자들이 있는데 못해 낼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실수 있는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 버섯배배에 필요한 균종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 버섯생산단위 건설할수 있었다고 말하곤 한다.



소문없이 일어난 기적이였다. 불과 100여일동안에 이루어진 자랑찬 성과였다.

우리의 미려한 군인건설자들은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당장건기 기념일까지 끝내데 대한 결심을 하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의 고유한 모습, 당군의 자랑스러운 풍모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뿔쳐일어나 돌밭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선인민군 한석규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현지로 달려온 것은 지난 6월말이였다. 당시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에는 7동의 크고작은 건물들이 있었다. 연구소가 주민지구에 자리잡고있고 또 건물들이 건설되지도 않았기때문에 기초까지 말끔히 들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첫시작부터 기세 좋게 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기초공사를 끝내고 혼합물다짐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역시 수 퍼붓는 비속에서 작업을 계속하던 지휘관은 다리를 저는 내 나이런 병사를 불러세웠다. 병사에게 다가가 신발을 벗기려던 그는 뜨거웠던 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감할수 없었다. 발이 통통 부어 신발이 벗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만에야 신발을 벗겨낸 그는 병사의 부어오른 발을 손으로 어루쓸며 말했다.

《당장 치료를 받으라구.》

《당장건기기념일까지 기어이 명령을 관철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제라도 문득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여기에 오시면...》

100여일동안에 기적을 창조한 병사들의 위훈을 두고

호동의 건설대상들에 대한 끝없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데 이어 100여일동안에 상하수도망과 기술시설망건설, 울타리공사 등을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지난 8월 중순 지열탐크릴기를 위한 굴착작업을 할 때였다. 땅속 8m깊이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사속도가 더디어졌다. 비까지 억수로 퍼부어 양수기와 수증기들을 퍼내지 않으면 안되던 상황이 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한 길에서 우리가 순간이라도 주춤한적이 있었는가. 군관동무들은 나를 따를지!》

지휘관의 구령소리와 함께 군관들이 또다시 작업장에 뛰어 들었다. 이른 새벽 가슴을 치는 물속에서 한석규소속부대의 군관들 대원들이 한삼두삼 굴착작업을 진행해나갈 때 조선인민군 리승길소속부대의 당원들까지도 완강히

지하층을 꾸리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군인건설자들이 스스로 세운 하루작업기준량은 300%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이곳 건설장에서는 천정미장과 벽타일붙이기, 바닥타일붙이기와 나무심기, 울타리세우기, 잔디심기 등 모든 공정이 립체적으로 와타당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드릴수 있게 모든 요소를 최상의 수준으로!

은하과학자거리건설을 끝낸 즉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또다시 새 건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리승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건설속도를 최대한 높여나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깨끗한 땅과 정성을 다 기울였다. 한창의 타일을 붙이고 한㎡의 미장을 하여도, 하나의 장식물을 만들어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완성하기

위훈을 두고

위해 군인건설자들이 바쳐온 지혜와 열정, 헌신을 어찌 다 말할수 있으랴.

남모르는 그 수고, 그 헌신을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헤아려주시었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당장건기기념일까지 끝내데 대하여 지시하셨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제일화한 인민군대에게 기어이 해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혁명군대의 본태라고, 인민군

대에 맡긴 보람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추켜세우는 군인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웨침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명명만 내리십시오.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나가 결사관철하고야말겠습니다.》

결사관철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흘렀다



유전 자원 실험실 분석실 세척조제실 접종실

뜻깊은 10월을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인 미더운 체육인들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경기성과를 두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돛이 되는 뜻깊은 10월에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의 축구, 탁구, 럭비, 체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경기에서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단연 우승하고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쳤다. 이 자랑스러운 경기성적들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같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해주었다.

물리케블수록 가슴직한 체육성적들이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 녀 축구경기에서 각각 1등, 탁구 혼성복식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여자탁구, 유도, 체조 등에서 연이어 전진한 승리의 소식들...

이것이 어찌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기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일까. 그것은 정녕 온 세상이 부러워할 키워준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

리 체육인 모두의 더없는 행복이며 긍지이다.

하기에 축구, 탁구, 럭비, 유도, 체조 등 모든 종목의 감독, 선수들은 훈련의 날날에 언제나 보람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체육훈련에서도 성과의 첫째가는 비결은 대승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 있다. 불같은 정신력에서 높은 목표와 구상도 나오고 지칠줄 모르는 이악한 훈련기록도 나온다.

녀자축구책임감독 김광민, 남자축구책임감독 윤정수, 탁구책임감독 김철웅동무를 비롯한 감독들부터가 비상히 양양된 열의에 넘쳐 훈련지도를 강화한 채로 달려나갔다. 훈련장에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최선식신들을 힘있게 벌리면서 선수대중의 정신력을 부단히 발동해나갔다. 매일 이루어지는 훈련성과를 적극 소개전진하고 훈련일지들에 신심을 북돋아주는 글도 써넣어 주면서 선수들 모두가 당과 조국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배우의 훈련열정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갔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기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일까. 그것은 정녕 온 세상이 부러워할 키워준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

리는 훈련으로 불같이 이어온 날과 날들이 미더운 축구선수들이 아낌없이 흘린 애국의 땀방울은 마침내 알찬 열매를 맺었다.

우리 나라의 남, 녀 축구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 축구경기에서 영예의 제 1위를 쟁취한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하다.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과 일본 팀과의 마지막경기는 처음부터 치열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외를 잘 살리면서 밀집방어와 대인방어로 일본팀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한편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불의적인 역습에 대한 중앙거리차량기로 전대하여 통쾌한 득점을 성공시켜 마침내 일본팀을 2:0으로 이기고 우승하였다.

여러 나라 축구전문가들과 감독들은 조선의 녀자축구선수들이 여러차례의 경기에서 한풀도 실점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겼다. 조선의 축구기술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제 52차 세계 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하여 세계 탁구계를 혼들었던 우리 나라의 김혁봉, 김진선선수들이 이번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탁구 혼성복식경기에서도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혼성복식경기에서 준준결승경기까지의 5회 3승으로, 하여 남조선선수들을 4:3으로

준결승과 결승경기는 7회 4승의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였다.

김혁봉, 김진선선수들은 16강전에서 남조선팀을 3:1로, 준준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3:2로,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4:3으로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승리하였다.

경기정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던 책임감독 김철웅동무는 7회전의 결정적인 시기에 타인아우트를 요구하였다. 경기과정에서 남조선팀의 전술적특징과 약점 등을 제때에 간파한 책임감독은 선수들에게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면서 시기적절한 전술안도 제시하였다. 그 순간은 당과 조국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이어 이 승리의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감독, 선수들의 의지가 더욱 역세게 다져지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필승의 신심을 가다듬은 김혁봉, 김진선선수들은 전술적외를 잘 살리면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담한 공격으로 상대팀 선수들을 연속 수세에 몰아넣었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키운이 성장하며 역세게 다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싸워 이겨의 경기장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렸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럭비, 유도, 체조종목경기에서도 경시에 편만한 높은 기술로 훌륭한 장면들을 연속 펼쳤다.

7일 녀자력기 63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정준미 선수가 풀어올리기에서 97kg, 추켜올리기에서 129kg를 들어올려 종합 1등으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승리의 돌풍을 일으켰다.

다음날에는 제 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정준미 선수가 신심에 넘쳐 69kg급경기에 출전하였다.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의 초석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구간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힘있게 싸워이겼다. 정준미 선수는 자신만의 그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온몸에서 무서운 힘이 뿜어져나왔다.

림정심선수는 세지있는 기술 동작을 잘 결합하여 풀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17kg, 148kg를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대회신기록을 세워 세계적 기록가로서의 면모를 날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키운이 성장하며 역세게 다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싸워 이겨의 경기장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렸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럭비, 유도, 체조종목경기에서도 경시에 편만한 높은 기술로 훌륭한 장면들을 연속 펼쳤다.

7일 녀자력기 63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정준미 선수가 풀어올리기에서 97kg, 추켜올리기에서 129kg를 들어올려 종합 1등으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승리의 돌풍을 일으켰다.

다음날에는 제 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정준미 선수가 신심에 넘쳐 69kg급경기에 출전하였다.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의 초석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구간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힘있게 싸워이겼다. 정준미 선수는 자신만의 그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온몸에서 무서운 힘이 뿜어져나왔다.

림정심선수는 세지있는 기술 동작을 잘 결합하여 풀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17kg, 148kg를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대회신기록을 세워 세계적 기록가로서의 면모를 날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키운이 성장하며 역세게 다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싸워 이겨의 경기장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렸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럭비, 유도, 체조종목경기에서도 경시에 편만한 높은 기술로 훌륭한 장면들을 연속 펼쳤다.

7일 녀자력기 63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정준미 선수가 풀어올리기에서 97kg, 추켜올리기에서 129kg를 들어올려 종합 1등으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승리의 돌풍을 일으켰다.

다음날에는 제 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정준미 선수가 신심에 넘쳐 69kg급경기에 출전하였다.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의 초석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구간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힘있게 싸워이겼다. 정준미 선수는 자신만의 그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온몸에서 무서운 힘이 뿜어져나왔다.

림정심선수는 세지있는 기술 동작을 잘 결합하여 풀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17kg, 148kg를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대회신기록을 세워 세계적 기록가로서의 면모를 날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키운이 성장하며 역세게 다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싸워 이겨의 경기장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렸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럭비, 유도, 체조종목경기에서도 경시에 편만한 높은 기술로 훌륭한 장면들을 연속 펼쳤다.

7일 녀자력기 63kg급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정준미 선수가 풀어올리기에서 97kg, 추켜올리기에서 129kg를 들어올려 종합 1등으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승리의 돌풍을 일으켰다.

다음날에는 제 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정준미 선수가 신심에 넘쳐 69kg급경기에 출전하였다.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의 초석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구간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힘있게 싸워이겼다. 정준미 선수는 자신만의 그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온몸에서 무서운 힘이 뿜어져나왔다.

림정심선수는 세지있는 기술 동작을 잘 결합하여 풀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17kg, 148kg를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대회신기록을 세워 세계적 기록가로서의 면모를 날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사령으로 원호하듯 헌전소에서 싸워왔다.》

전 각 지역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같이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총돌격전, 총돌진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평양시내맹위위원회 일군들은 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찾아가 닦고 밝히다 못하듯 전진열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었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아래단위 일군인 림평속동무와 종업원들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찾아가

중요대상건설 적극 지원

가 중대경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 주었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사령으로 원호하듯 헌전소에서 싸워왔다.》

이것이 어찌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기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일까. 그것은 정녕 온 세상이 부러워할 키워준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

호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원수님의 은덕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마련한 여러 마리의 집짐승과 많은 물자들을 문수물놀이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 주었다.

평양시내맹위위원회아래 단위 일군인 김광욱동무와 이국 종업원들 그리고 만경대구역 김일길 1동 5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희영, 평상시 양치동 8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정희, 농업출판사에서 일하는 주은선, 어느 한 단위에 일하고있는 허명일, 김향미, 소순옥, 어느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김일길동무들과 금성제 1중학교 김일향학생도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아래 단위 일군인 림평속동무와 종업원들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찾아가 닦고 밝히다 못하듯 전진열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었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아래단위 일군인 림평속동무와 종업원들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찾아가

지도 건설장에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황구구역 항구교중학교 전수반, 동정양제 1중학교 황진수, 신의주시 청송중학교 조수려학생들도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가지고 중요대상건설장에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외교단사업총국아래단위 일군인 김광욱동무와 이국 종업원들 그리고 만경대구역 김일길 1동 5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희영, 평상시 양치동 8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정희, 농업출판사에서 일하는 주은선, 어느 한 단위에 일하고있는 허명일, 김향미, 소순옥, 어느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김일길동무들과 금성제 1중학교 김일향학생도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아래 단위 일군인 림평속동무와 종업원들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찾아가 닦고 밝히다 못하듯 전진열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었다.

단친청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병사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고

의 애국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김진기/본사기자

단친청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병사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고 원군사업을 잘하고 있다.

병사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고

의 애국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김진기/본사기자

단친청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병사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고

의 애국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김진기/본사기자

단친청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병사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고

의 애국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김진기/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와 김일성 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도네시아무상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2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의 무상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으며 세계적주위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활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웅들께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사가 인사말 드리고 있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의

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외무상은 방문록에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와 김정일각하께 경의를 표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절세위인들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하고 공교발 전시기에는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고 했다.

우리 나라 엄운철 선수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엄운철 선수가 56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 태국, 타이, 쿠바, 폴란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헝가리를 비롯한 세계 5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310여명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남자축구 4.25팀과 만경보림,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 녀자축구 4.25팀과 리명수팀, 갈매기팀과 황룡산림사이의 경기가 22일에 있었다.

중간지대에서의 공방악과 2.3인전력, 차지있는 문전돌입을 조직한 4.25팀이 만경보림을 1:0으로 이겼다.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두 팀이 서로 각 각 한골씩 넣음으로써 2:2로 비긴 상태에서 끝났다.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엄운철 선수가 56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 태국, 타이, 쿠바, 폴란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헝가리를 비롯한 세계 5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310여명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남자축구 4.25팀과 만경보림,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 녀자축구 4.25팀과 리명수팀, 갈매기팀과 황룡산림사이의 경기가 22일에 있었다.

중간지대에서의 공방악과 2.3인전력, 차지있는 문전돌입을 조직한 4.25팀이 만경보림을 1:0으로 이겼다.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두 팀이 서로 각 각 한골씩 넣음으로써 2:2로 비긴 상태에서 끝났다.

우리 나라 엄운철 선수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엄운철 선수가 56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 태국, 타이, 쿠바, 폴란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헝가리를 비롯한 세계 5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310여명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남자축구 4.25팀과 만경보림,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 녀자축구 4.25팀과 리명수팀, 갈매기팀과 황룡산림사이의 경기가 22일에 있었다.

중간지대에서의 공방악과 2.3인전력, 차지있는 문전돌입을 조직한 4.25팀이 만경보림을 1:0으로 이겼다.

경공업성림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두 팀이 서로 각 각 한골씩 넣음으로써 2:2로 비긴 상태에서 끝났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인도네시아외무상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 일행이 22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활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웅들께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사가 인사말 드리고 있다.

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외무상은 방문록에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와 김정일각하께 경의를 표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백의총외무상과 라벤 모함마드 마르드 몰리어나 나말페가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22일 민주주의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일행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